

#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Implementing 40 Working-hours Each Week at Public Libraries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 초 록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서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정보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 전략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서, 이용자, 일반국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면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각각 시행중인 도서관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향후 정부가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 ABSTRACT

Since government institutions begin working 40 hours each week, public libraries in Korea face the challenge of not onl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librarians by improving their work environment, but also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services for patr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tential problems which could happen with the 40 working-hours each week in public libraries, and establish the strategie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For this study,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an attempt is made to review and analyze the following facts: (1) the details of planning for 40 working-hours each week at the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2)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and service strategies of publ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where librarians work 40 hours each week; (3) the present state of managing public libraries with 40 working-hours each week in Korea; and (4) the strategies of public libraries as a part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preparing for 40 working-hours each week which will be fully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경영,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근무제

Public Library, Library Management, Forty Working-Hours Each Week, Five-Day Workweek

---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9일

## 1.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주5일 근무제 추진 계획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단계별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다가 2005년 7월부터 전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의 기대효과는 직접적 효과, 파생적 효과, 기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 효과로는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고용확대와 실질임금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간접적 기대효과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내수시장이 진작될 수 있다. 기타 효과로는 노사양측이 축소된 근로시간만큼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근로시간이라는 양적 잣대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소위 성과 위주의 경영문화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이러한 기대효과는 개인차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차원의 여가 향유를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가시간을 문화향유에 할애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테면, 만약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한다면,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사서직원들의 업무부담은 배가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으로 볼 때, 획기적인 운영상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도서관의 직원 수와 예산의 부족 문제 등이 사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담은 가일층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금도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들은 주말근무, 시간외 근무 등으로 타 직종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연간 공휴 일수와 연가 일수 축소 및 동절기 단축근무가 폐지됨으로써 그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바람직한 근무방안의 수립은 필수불가결한 현안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전술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도서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곽동철 2005).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사서들 개인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업무 능률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정책과제인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 방법 및 근무 형태의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서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정보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 전략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사서, 이용자, 일반국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면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울시도서관연구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대지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각각 시행중인 도서관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향후 정부가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 2.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의 내용

우리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일 휴무가 실시되었고,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고자 2004년 6월 24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48호)을 제정하여 지금에 이르

고 있다. 그 이후 행정자치부는 2005년 5월에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지침' 및 2005년 6월에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안)'을 공표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부는 2005년 4월에 '주 40시간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행 지침은 국가공무원법무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행정자치부 2005). 첫째,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토요일원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민 접촉창구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또한 대민서비스기관, 국민생활이용기관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으로 지침을 운영한다. 이를테면, 직무의 성질, 지역 및 기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기관장의 재량으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행정혁신의 계기로 활용한다. 즉,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자기개발 및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혁신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 및 '토요일휴무제'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후자의 두 경우는 상호 유사한 개념이지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토요일휴무제는 주 5일 근무제의 한 방안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제나 토요일휴무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한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제1단계(2004.1-2004.6)에서 월 1회 또는 제2단계(2004.7-2005.6)에서 월 2회 토요일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 제3단계(2005. 7 이후)부터는 토요일마다 휴무를

실시할 것이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단계에서 기존의 4번째 휴무토요일과 연계하였고, 제2단계에서는 2·4번째 토요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휴무토요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급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등)의 장도 직무의 성질·지역 및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휴무토요일을 1·3번째 토요일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기관과 국민생활이용기관 및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들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자율적·탄력적으로 휴무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휴무토요일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일반 행정기관,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 나누어 근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에 휴무토요일에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의 민원실 및 당직실 활용, 별도 상황실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토요일민원상황실을 설

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토요일민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실정에 맞게 필요한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에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별로 인력 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비롯되는 휴무토요일 관련 복무관리도 행정기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민원상황실 근무자 및 소속 부서에서 상담·질의회신 등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토요일 또는 평일(4시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지만, 상기한 민원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 다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대체휴무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의 경우에는 휴무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 기관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근무체

(표 1)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 유형

유형	행정기관
대민서비스기관	우체국, 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국민생활이용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국악원, 공원, 휴양림, 현충원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파출소, 기동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철도역, 철도청 현업기관(보선사무소 등), 항공관제, 경비합정, 기상대, 전파관리소, 상황실 등

제 유지기관에서도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상시근무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방안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국민생활이용기관 관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지침을 원용하면 어느 정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근무체제를 모색할 수는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휴무일, 휴무기관 및 부서,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결재·회의·보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 평일 근무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차원에서 어학·동호회·취미생활 등 직원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사회봉사활동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

### 3. 외국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 현황

#### 3.1 외국 공공도서관의 근무 및 휴관 요일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왔으므로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에 맞추어 도서관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관일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나타난 각 국가별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모두 515개관의 도서관에 대한 근무 및 휴관 요일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대상 공공도서관들이 국경일에는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0.6%가 평일과 토요일에, 14.0%가 평일과 일요일, 7.0%가 토요일과 일요일, 3.5%가 평일 이틀과 일요일, 32.4%가 평일 하루, 34.4%가 일요일 하루를 휴관하고 있다. 즉, 전체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가운데 58.9%의 도서관들이 일요일 하루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2-3일간 공식적으로 휴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그 가운데 8.1%의 공공도서관은 국경일 및 관내소독 등 특정한 날을 제외하고 전혀 휴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본 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외국의 공공도서관 515개관 가운데 303개관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적어도 일요일 하루를 휴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일부 공공도서관이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관하면서 휴관일을 월요일로 정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공도서관

(표 2) 외국 공공도서관의 근무 및 휴관일 현황

국가별	도서관명	휴관일별(국경일 제외) 도서관 수							비고
		평+토	평+일	토+일	평평일	평(1)	일(1)	미휴관	
미국	Virginia Public Library			1					
	Houston Public Library							1	
	Dever P.L.(22개관)		10		10	2			
	Birmingham P.L.(20개관)		2	5			7	6	
	Berkeley P.L.(6개관)		1				5		
	Chicago P.L.(78개관)						75	3	
	Boston P.L.(28개관)			1			26	1	
	Hawaii State P.L.(52개관)	3	18	25	1		5		
네덜란드	Amsterdam P.L.(28개관)		19		6	1	1	1	
핀란드	Helsinki City Library(38개관)		1	3			28	6	
독일	Berlin P.L.(5개관)			1			4		
영국	York City Libraries(16개관)		12				4		
	Redbridge City Libraries(10개관)		8				2		
프랑스	Reims P.L.(6개관)		1		1		4		
호주	Mount Gambier Public Library						1		
뉴질랜드	Wellington City Libraries(12개관)						12		
캐나다	Ajax P.L.(3개관)						1	2	
일본	Simonoseki City Libraies(6개관)					6			월, 기타
	Yokohama City Libraies(18개관)							18	기타
	Hyogo Prefectural Libraies(88개관)					88			월, 기타
	Niigata Prefectural Libraies(70개관)					70			월, 기타
말레이시아	Sabah State P.L.(6개관)						2	4	
	계(515개관)	3	72	36	18	167	177	42	
	비율(100%)	0.6%	14.0%	7.0%	3.5%	32.4%	34.4%	8.1%	

\* P.L. : Public Library를 지칭함. \* 임시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제외함.

\* 휴관일 표기 : 평+토 => 평일 하루와 토요일이 휴관일임을 표기함.

평평일 => 평일 이틀과 일요일이 휴관일임을 표기함.

일(1) => 일요일 하루만 휴관일임을 표기함.

은 독립(현립)이거나 시립이거나간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 연간 휴관일수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Shimonoseki City Library에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월요일(1월-11월), 국경일, 연말연시(12월28일-익년 1월3일), 관내정리일(매월 말 금요일) 등을 휴관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Yokohama City Library에서는 도서관시설 점검일(매월 1회), 연말연시(12월29일-익년 1월3일), 도서

특별정리일을 제외하고 거의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Hyogo Prefectural Libraies의 경우에는 7개 공민관도서관을 제외한 88개관의 공공도서관들이 모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요일, 국경일, 매월 16일, 연말연시(12월28일-익년 1월4일), 특별정리기간(5월 전반에 2주간)을 휴관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Niigata Prefectural Libraies에서도 거의 Hyogo Prefectural Libraies의 경

우와 유사하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공공도서관을 조사 대상 도서관으로 포함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논리의 전개상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님으로 논외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및 소관 행정부처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도서관 근무 및 휴관 현황을 참조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공식적인 휴관일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가. 최소한 토요일과 일요일 가운데 하루는 휴관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관일로 정할 수 있을까. 둘째, 주당 40시간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 소요 인력의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정보서비스의 질적 저하 없이 도서관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 3.2 외국 공공도서관 직원의 근무 조건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직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오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주 4일 또는 5일에 걸쳐 총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표 2의 공공도서관들은 요일별 개관 및 폐관 시간을 각각 기관차원에서 조정하거나, 주 정부

또는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전체적인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만 휴관을 하지 않거나 일요일만 휴관을 실시하면서, 그 산하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요일별 개관·폐관시간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요일을 포함하여 2-3일간의 휴관일을 결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주 40시간의 범주 내에서 도서관이나 개인차원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공공도서관의 근무여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지니아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국경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을 휴관일로 명시함과 동시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반면에 휴스턴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휴관일이 없이 일요일에도 개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공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일요일에 휴관을 실시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가운데 덴버공공도서관이나 버밍햄공공도서관 및 하와이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다른 주의 경우보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함께 주4-5일 근무제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각 주마다 공공도서관 근무여건이 서로 다른 것은, 캐나다나 호주 및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지만, 도서관의 개관과 휴관 및 근무시간 관련 도서관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기준에서는 봉사대상인구나 도서관의 규모 및 도서관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중앙관, 지역분관, 기타 등)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근무시간을 규정하기도 한다(<http://www.statelib.lib.in.us/>

www/isl/ldo/pubstan.html).

그리고 선진국 공공도서관들은 직원들이 국가별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통상임금의 1.5배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미국의 보스턴공공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 35시간, 관리업무봉사는 주 40시간 주 4-5일씩 근무한다. 각 부서가 스스로 하루를 충당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작성한다. 정규직원의 임금계획에 의하면 35시간 이상에 대한 근무시간은 미 연방법에 따라 1주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Christchurch City Library의 네트워크 안에 많은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시간과 날짜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최대한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들은 각각 개관시간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근무계획을 각 팀의 재량으로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정규직원이 주 37.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Aarhus Public Library에서는 사서들과의 협정에서 반드시 주 5일이라고 확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서들은 선택적인 주 5일 근무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협정에 기초하여 근무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공공도서관은 매주 세 번째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 일요일은 휴관이지만 5월부터 10월까지의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이 기간 동안은 매주 일요일 마다 근무한다. 그러나 공

공도서관은 직원들이 매주 6일 동안 쉬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근무” 앞이나 뒤로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Aichi Prefectural Library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은 주 6일 개관을 하고 있으며, 창구업무 담당직원(열람 및 대출봉사)들은 4주마다 8번의 휴일을 갖는다. 즉, 이들은 월요일이 휴관일이므로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즉, 8일간의 휴일은 월요일 4번, 일요일 2번, 토요일 1번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하루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정규직원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정규급여의 1.25-1.6배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Shimane Prefectural Library에서도 주 6일(화요일-일요일)을 개관을 하고 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매주 월요일, 국경일, 매월 말일, 연말연시(12월28일-익년 1월4일), 특별정리기간(연2회, 각 10일간) 등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 실태

##### 4.1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의 근무 여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금까지 대부분 월요일을 휴관일로 설정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개관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 왔다. 도서관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차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토요일휴무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고정관념, 즉, 관행



을 깨고자하는 노력에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전에도 항상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및 일요일 근무를 위해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죽하였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K시장은 자신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느낀 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가운데 사서직이 가장 3D 직종이라는 얘기를 하였겠는가. 그는 이러한 인식 속에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면서 담당부서장에게 사서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각종 건강 증진과 복지 등을 위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려 대형 공기청정기와 건강검진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직원들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개정되었다. 그 핵심 조항인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주 40시간제의 시행은 2004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종 2011년까지는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동법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미 외국인회사들은 이러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부터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하여 왔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전격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여 초기 단계에서 잠시 혼란을 가져왔을 뿐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은 매월 1회씩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1단계 근무('04. 1-04. 6)를 실시하였고, 2004년 7월부터 매월 2

회씩 토요일을 휴무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2단계 근무('04. 7-05. 6)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토요일마다 휴무를 실시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3단계(전면 토요일휴무제)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도서관들은 인력의 증원이나 예산의 증액 등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 근무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다보니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너무도 다양한 근무방식들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도서관의 주변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1단계 및 2단계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소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희망을 접고 체념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서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도서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악화일로에 처해 있고, 이용자 역시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총의를 수렴할 위치에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의 근무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도서관 사서직원들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도서관계의 근무방안을 도출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이용자 오지 않는 도서관이나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의견에 이의가 없듯이 이용자와 사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4.2 사서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도서관 사서직원들은 관중을 불문하고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와 그림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서울시도서관연구회에서 공공도서관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대지부에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서울시도서관연구회, 2002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대지부 2004). 표 3과 표 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관중에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시

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직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의 같이 이에 상응하는 대체휴가나 수당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들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추어 도서관에도 그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대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0% 정도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사항'(40.9%)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확보'(29.5%)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에서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들

(표 3)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일반공공서와 같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토·일요일 모두 휴무)	30	27.5
일반 열람실만 개관한다(토·일요일 모두 휴무)	18	16.5
현행처럼 토·일요일 근무하고 공휴대체(2일)를 준다	27	24.8
현행처럼 토·일요일 근무하되, 토요일은 공휴대체, 일요일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5	13.8
토·일요일은 러시아워 시간만 개관하고(예: 오전11시-오후3시), 근무자에게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9	8.3
기 타	10	9.2
계	109	100.0

(표 4) 대학도서관 직원이 바라는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별 운영 형태

시행시기	휴관횟수			토요일근무형태			
	완전 휴관	월2회 휴관	완전 개관	현수준으로 근무	근무하지 않는다	대체인력 확보로 직원근무 없앤다	도서관 결정에 따르겠다
04년7월-05년6월	16.7%	<b>69.4%</b>	8.3%	25.7%	25.7%	<b>31.4%</b>	2.9%
2005년 7월 이후	<b>68.6%</b>	17.1%	8.6%	20.0%	31.4%	<b>34.3%</b>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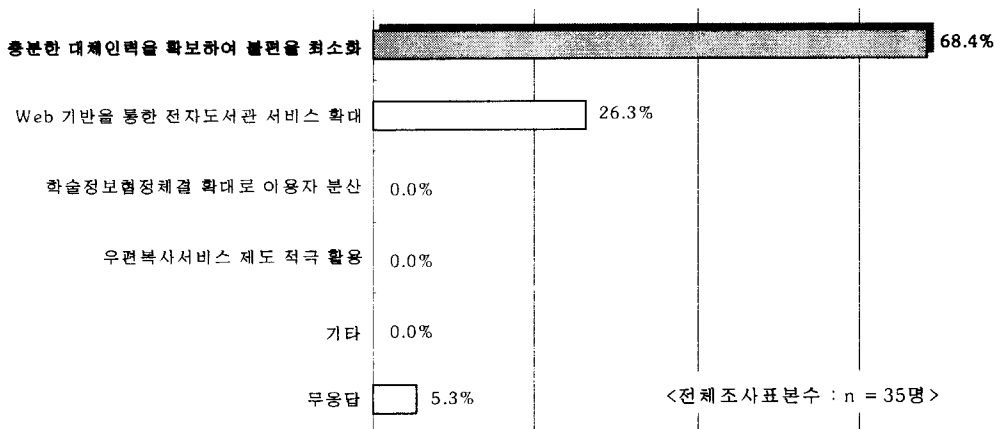
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완전히 휴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휴무일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직원이 근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표 5와 그림 1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서직원들이 바라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소요인력의 투입을 위해 직원을 충원하거나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도서관이나 정보기술 및 첨단정보기기 등을 활용하여 평일은 물론 휴무일에도 정보서비스 업무를

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근본적인 인력의 부족과 함께 충분한 정보기기의 부족 등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거나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토요일 및 일요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도서관직원들의 거의 40-50%가 여가 활용과 자기 개발에, 그리고 15-25% 정

(표 5)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에 대한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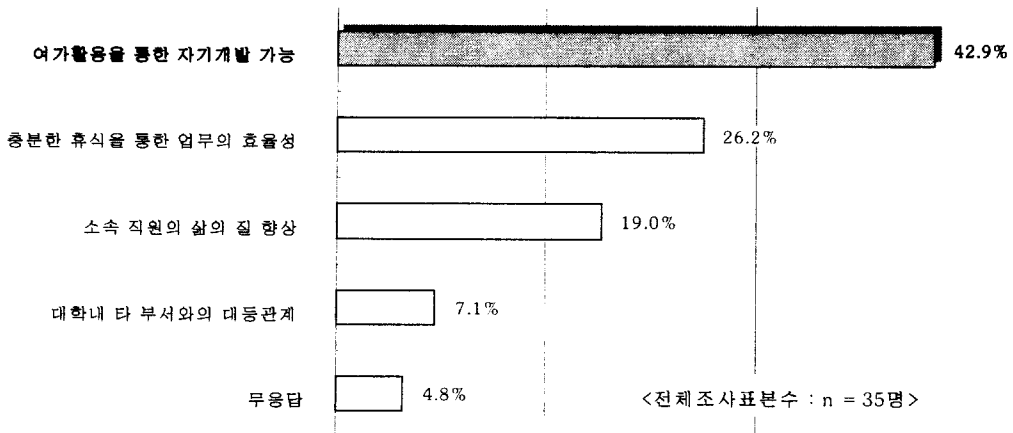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직원을 충원하여 현행대로 근무	24	16.4
도난방지 시스템의 설치를 전제로, 대출·반납업무를 중앙센터(예: 현재 안내실)에 설치하고 필수요원만 근무	38	26.0
무인대출·반납시스템(회원카드 인식판독) 설치 활용	44	30.1
다양한 문화행사를 토·일요일에 진행	6	4.1
첨단장비(예: 화상정보시스템 등)를 설치 활용	13	8.9
인터넷,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즉답(예: 채팅, 메신저 등) 정보제공 기능으로 변화	15	10.3
기 타(계약직, 시간제, 공공근로자, 자동화장비 활용 등)	6	4.1
계	146	100.0



(그림 1) 대학도서관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 이용자 불만 해소방법

(표 6) 토요일 및 일요일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휴식으로 육체적 피로를 푼다	26	17.1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16	10.5
취미생활 및 여행 등 여가를 즐긴다	68	44.7
공부·강습 등 능력개발에 투자한다	34	22.4
기 타	8	5.3
계	1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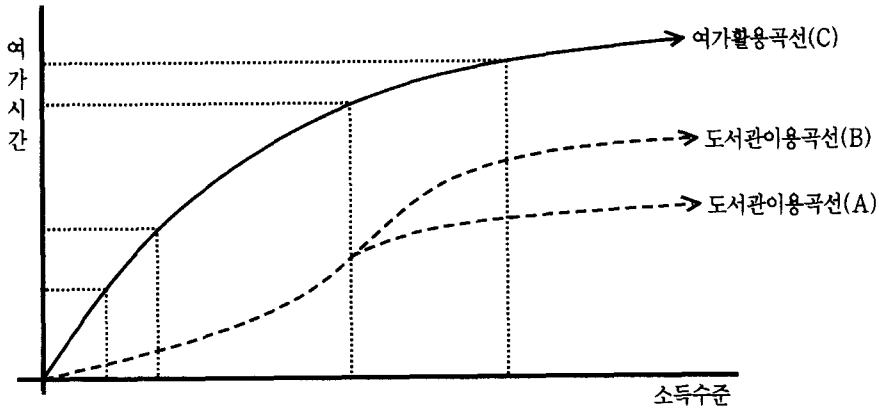
(그림 2) 주 5일근무제 시행시 대학도서관에 나타날 장점

도가 휴식에 투자할 것이란 응답을 하였다.

#### 4.3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 추이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실시는 도서관의 자료이용이나 방문자 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직장에서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많은 여유시간을 가지지만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 증가로 직결되지 않고, 그 시간을 다른 여가문화에 소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윤희윤 20023). 물론 초·중·고교의 마지막 주 토요일

일 휴무제,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토요일 전면 휴무 등은 공공도서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3에서와 같이 도서관이용곡선(A, B)과 여가활용곡선(C)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도서관이용은 단시간에 대폭 증가하기보다 서서히 증가할 것이며, 여가 활용곡선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꾸준히 정보서비스 활동을 전개한다면 여가활용곡선이 둔화될 즈음에 도서관이용은 B 곡선과 같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



(그림 3) 도서관이용과 여가활용의 상관관계

지만, 공공도서관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정보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면 도서관의 이용은 A곡선과 같이 완만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즉, 여가활용곡선이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공공도서관이 제 위상을 찾지 못하면 도서관의 존재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공공도서관의 운영이나 이용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방치하거나 시행된 후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단축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내재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직원과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표출되고 있는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절실한 시점이다.

## 5.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

### 5.1 공공도서관 및 사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응 견해 수렴

2004년 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공공도서관위원회와 권익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대처하고자 전국 공공도서관 및 사서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바 있다. 사서직도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을 휴무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의 종사자인 전문직 사서라는 입장에서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휴무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상기 양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서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최소한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사서들 및

도서관 관련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곽동철 2005).

이 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위원회·권익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곽동철 2004). 여기서 각 지역별 참가도서관에서 전체 현황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도서관의 수를 1개관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근무방식의 선호순위 가운데 '(1)'로 표시된 것은 사서직원들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서직원들이 차선책으로 문화기반시설로서 도서관의 특성상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요일에 하루만이라도 휴무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서직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를 누리고 싶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요일 이용자의 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직원들의 소박한 바람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직원들은 주말 이틀 가운데 하루라도 가정 및 사회생활의 참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자 한다. 이는 사서직원들이 평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

는 것이다. 둘째, 사서직원들은 여가시간의 활용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 경영에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주말 휴관 제도는 평일에 휴관하지 않음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타 기관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추진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려면 사서직원과 이용자 가운데 일방의 이익보다는 상호 윈-윈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2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주 40시간 근무제 대처방안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2단계 및 전면 실시에 앞서 사서직원들의 근무에 미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공도서관위원회와 권익협력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전국의 도서관 및 사서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토요일 개관, 일요일 휴관, 변형 근무시간제)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여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재 도서관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들은 평일 가운데 하루를 휴관일로 정하는데, 대부분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거의 관계없이 개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

(표 7)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주말 경영 관리 실태

공공도서관의 주말(토·일) 경영관리 실태 (평일 및 주말의 시간의 근무 사항 제외)		도서관별 현황 의견 제출기관수( )											일반 행정 기관	
		서울 경기 (1)	부산 (11)	대구 (9)	대전 (1)	인천 (1)	울산 (3)	광주 전남 (1)	충남 (14)	경남 (24)	경북 (50)	강원 (24)		제주 (6)
주 40시간 근무이전	전체 직원 전요일 전일 근무(화-일)	1	11	9	1	1	3	1	14	24	50	24	6	일요일· 국경일 휴 무
	토요일·일요일 양일 조별 근무조 편성	1	11	9	1	1	3	1	14	24	50	24	6	
	토요일만 조별 근무조 편성	-	-	-	-	-	-	-	-	-	-	-	-	
	일요일만 조별 근무조 편성	-	-	-	-	-	-	-	-	-	-	-	-	
	일요일(일부는 화요일, 격주평일)·국경 일 휴관	1	11	9	1	1	3	1	14	24	50	24	-	
	거의 연중무휴 개방(신정, 구정, 추석 등만 휴관)	-	-	-	-	-	-	-	-	-	-	-	6	
주 40시간 근무이후	월 1회 토요일 휴관	-	-	-	-	-	-	-	-	2	-	-	-	월1회 토요 일 휴무
	월 1회 일요일 휴관	-	-	-	-	-	-	-	-	2	-	-	-	
	나머지 토·일요일 정상개관 조별 근무조 편성	-	-	-	-	-	-	-	-	4	-	-	-	
	전체 토·일요일 정상개관, 조별 근무조 편성	1	11	9	1	1	3	1	14	20	50	24	6	
	변형근무제(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	-	-	1	-	-	-	-	-	-	-	
주 40시간 제 문제점 (2차)	<문제점>	<대응 전략>											월2회 토요 일 휴무	
	토·일요일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 사례 발생	대출권수기간연장, 디지털화, 무인반납, 인터넷, 홍보강화												
	행정기관과 달리 징검다리 휴일 발생	도서관 휴관일 변경(월요일-)일요일)												
	자유열람실 개방 요구	리모델링 후 테마자료실, 전시실 등으로 특화												
	가정·사회생활 지장, 사기저하	휴일 근무수당, 일용직·자원봉사자 활용												
	사서직원의 업무 과중	사서직 정원 증원, 주말·휴무일근무자증원, 아웃소싱												
바람직한 방안(2,3 차 이후)	<근무 방식>	<선호 순위>											토요휴제 전면실시	
	정상근무(월-금), 토·일 휴관(행정기관 과 동일)	(1)	(1)	(1)	(1)	(1)	(1)	(1)	(1)	(1)	(1)	(1)		(1)
	정상근무(월-토), 일·월 휴관	2	1	3	3	2	3	3	3	1	3	2		2
	정상근무(월-토),일 휴관, 토요휴무대체, 변형근무	1	2	1	2	1	1	1	1	2	1	1		1
	정상근무(월-금), 일 휴관 토 근무조 편성	3	3	2	1	2	2	2	2		2	3		3
	정상근무(월-금), 토·일당번제근무(약 국·병원 참조)		4	4						3				
기존근무(화-일),월 휴관, 시간의·휴일 근무수당		5	5				4		4		4	4		

〈운영방법〉  
 ○ 월~토요일 : 정상 개관, ○ 휴관일 변경 : 매주 일요일 휴관  
 ※ 전국 지역별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일요일 휴관을 원하고 있음  
 ○ 공휴대체 : 주중 1일씩 교대로 토요일전일근무에 대한 공휴대체  
 - 2004. 7 - 2005. 6 ; 주중 월 2회, - 2005. 7 이후 ; 주중 월 4회

〈기대효과〉  
 ○ 휴일 근무자 축소로 평일 업무공백 최소화, ○ 직원들의 자기 연찬 발전 기회 확대  
 ○ 직원들의 가족과의 공동 여가 생활 가능으로 삶의 질 향상  
 ○ 휴일 2일중 일요일 하루라도 휴무실시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상승  
 ○ 도서관의 토요일 정상개관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 평일 공휴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평일 업무능률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 극대화  
 ○ 주 40시간 근무제 1단계 실시에서 보다 사서직원의 증원 및 대체인력(산업연수생, 공익요원, 공공근로, 임시직 등)의 추가 수요 발생으로 정부의 실업자 고용정책에 능동적 참여 가능  
 ○ 변형근무제(근무시간 변경) 병행시 퇴근 후 평일 도서관 이용 가능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도서관의 사서직원과 이용자간 상생 가능(인천 부평도서관 참조)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항상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일요일 근무를 위해 근무조를 편성하거나 교대 근무 실시로 인해 원만한 가정 또는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정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직원 수로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사서직이 직장 근무 조건면에서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에 비해 3D 직종으로 평가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행정기관 월 1-2회 토요일 휴무제 실시 이후 공공도서관의 근무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1단계 및 2단계 실시 이전과 동일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1-2단계 실시 이후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작거나 사서직원수가 적은 도서관일수록 근무여건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상관없이 항상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를 위해 근무조 편성 및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부족한 사서직원의 증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체인력(산업연수생, 공익요원, 공공근로 등) 투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만족도 유지 및 정부의 실업자 고용창출 정책을 고려한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운영 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을 전일근무제로 전환(2단계: 월2회, 3단계: 월4회)하면서, 아울러 토요일 전일근무에 대해 주중 평일 하루씩 도서관직원의 공휴 대체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1단계 및 2단계 실시에서 보다 2단계와 전면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 사서직원의 증원 및 대체인력(산업연수생, 공익요원, 공공근로, 임시직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은 이용자 없는 도서관이나 사서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는 의견에 이의가 없듯이 이용자와 사서가 상생할 수 있는 근무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일요일 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보완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일요일 휴관에 따라 예상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들을 다음과 같은 보완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은 관외 대출 자료의 확대 실시하고, 대출 자료의 택배 서비스를 실시(우체국, 택배회사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전자도서관시스템 활성화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참고봉사 서비스를 실시(모바일 도서관 확대)하고, 사무자동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증진(무인 대출반납기 설치, 자동응답시스템 도입, 사전 이용 예약제 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개관시간을 자율화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시간 대를 조사하여 생활패턴과 밀착된 운영시간을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도서관 관장이 이러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지정,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 내용 등에 대한 홍보하고, 시행초기에 주민들을 이해시켜나가고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 대비 하여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강

화할 필요성도 있다.

## 6.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

우리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 가득히 차고, 사서직원들은 눈코를 뜰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질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울시도서관연구회에서 주관한 ‘공공도서관 주5일 근무제’ 관련 발표에서 토론자의 발표내용에서와 같이, 그 반대로 바빠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사서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관리 또는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사서가 아닌 도서관의 입장으로 개인의 조직 내에서 위상을 유지하거나 공고히 하려는 관장인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서직원을 위해서 도서관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서직원의 회생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정부차원에서 7년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 가운데 도서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2003). 이는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문화 활용 실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1 여가 문화 활용 실태 분석

우리 정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휴관일을 주말 양일 가운데 하루인 일요일로 확정하여 운영하더라도 다음의 표 8, 표 9, 표 10에서와 같이 이용자나 도서관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 8와 표 9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중 공공도서관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잡지 보기', '독서', '비디오/DVD 감상', '인터넷/게임/전자오락', '학습'을 평일에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주말 및 휴일의 여가문화 활동을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율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문/잡지 보기', '독서', '학습' 활동은 최근에 이를수록 여가문화 활동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일요일을 휴관일로 결정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아울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주말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면 전술한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수행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표 8) 국민의 평일 여가문화 활동 실태(1997-2003)

여가문화 활동	1997년		2000년		2003년		비고
텔레비전 보기	18.8%	1	20.3%	1	22.9%	1	
집에서 쉬다/낮잠	16.7%	2	13.8%	2	16.0%	2	
신문/잡지 보기	9.6%	3	9.0%	3	7.9%	4	
산책/운동/스포츠	7.5%	4	8.4%	4	7.4%	5	
친구만나기/모임참가	6.7%	5	7.4%	5	4.9%	7	
독서	5.5%	6	3.2%	10	4.5%	8	
음악감상	5.4%	7	5.0%	6	4.1%	9	
라디오 듣기	5.3%	8	3.3%	9	2.4%	11	
비디오/DVD 감상	4.4%	9	2.9%	11	2.0%	12	'03(DVD)
가족과 대화/외식	3.6%	10	3.5%	7	5.4%	6	
종교활동	2.5%	11	2.0%	15	1.3%	17	
음주	2.0%	12	2.0%	13	2.5%	10	
오락/잡기	1.8%	13	1.8%	17	1.6%	13	
인터넷/게임/전자오락	1.7%	14	3.4%	8	9.5%	3	'97(컴퓨터통신)
생활취미활동	1.7%	15	2.1%	12	-	24	
학습	1.5%	16	1.7%	19	0.9%	19	
예술감상	1.4%	17	1.6%	20	1.3%	16	'97(문화예술감상)
스포츠관람	1.1%	18	1.7%	18	0.6%	20	
노래방/게임방/전자오락실	0.8%	19	2.0%	14	1.1%	18	'97(노래방)
예술창작	0.8%	20	0.9%	22	0.3%	22	'97(문화예술참여)
등산/낚시	0.8%	21	1.4%	21	1.3%	15	
여행	0.3%	22	0.3%	24	0.3%	21	
쇼핑	-	24	1.9%	16	1.4%	14	
기타	0.3%	23	0.4%	23	0.2%	23	
계	100.0%		100.0%		100.0%		

(표 9) 국민의 주말·휴일 여가문화 활동 실태(1997-2003)

여가문화 활동	1997년		2000년		2003년		비고
텔레비전 보기	15.4%	1	14.1%	1	14.2%	1	
집에서 쉰다/낮잠	12.7%	2	11.6%	3	12.2%	2	
신문/잡지 보기	3.1%	10	3.3%	10	1.8%	16	
산책/운동/스포츠	5.8%	6	5.6%	6	7.6%	5	
친구만나기/모임참가	12.4%	3	11.9%	2	8.8%	4	
독서	2.5%	13	1.9%	17	2.2%	14	
음악감상	2.1%	14	2.2%	16	2.1%	15	
라디오 듣기	1.6%	17	1.1%	21	0.6%	20	
비디오/DVD 감상	4.8%	8	2.9%	12	2.5%	12	'03(DVD)
가족과 대화/외식	9.3%	4	8.8%	4	10.7%	3	
종교활동	6.0%	5	5.4%	7	4.4%	10	
음주	3.1%	11	3.3%	9	2.3%	13	
오락/잡기	1.9%	15	1.8%	18	1.0%	18	
인터넷/게임/전자오락	1.1%	20	2.4%	15	5.9%	7	'97(컴퓨터통신)
생활취미활동	1.3%	19	1.3%	20	-	24	
학습	1.1%	21	0.5%	22	0.4%	22	
예술감상	3.0%	12	2.6%	13	3.3%	11	'97(문화예술감상)
스포츠관람	1.5%	18	1.8%	19	0.9%	19	
노래방/게임방/전자오락실	1.6%	16	2.5%	14	1.6%	17	'97(노래방)
예술창작	0.5%	22	0.5%	23	0.4%	21	'97(문화예술참여)
등산/낚시	5.5%	7	5.3%	8	6.2%	6	
여행	3.1%	9	3.1%	11	5.3%	9	
쇼핑	-	24	5.7%	5	5.5%	8	
기타	0.4%	23	0.5%	24	0.2%	23	
계	100.0%		100.0%		100.0%		

(표 10) 국민의 희망하는 주말·휴일 여가문화 활동(1997-2003)

여가문화 활동	1997년		2000년		2003년		비고
텔레비전 보기	2.4%	13	2.5%	12	2.6%	10	
집에서 쉰다/낮잠	4.2%	9	3.9%	9	2.8%	9	
신문/잡지 보기	1.0%	21	1.0%	22	0.4%	20	
산책/운동/스포츠	4.8%	6	5.1%	7	8.2%	6	
친구만나기/모임참가	8.2%	4	8.7%	3	9.5%	3	
독서	2.1%	14	1.3%	20	0.9%	19	
음악감상	1.4%	19	1.4%	17	1.2%	16	
라디오 듣기	0.4%	22	0.2%	24	0.3%	22	
비디오/DVD 감상	1.9%	15	1.4%	18	1.5%	15	'03(DVD)
가족과 대화/외식	9.6%	3	8.4%	4	9.0%	5	
종교활동	3.9%	10	3.1%	11	2.3%	11	
음주	1.6%	17	1.5%	16	1.0%	17	
오락/잡기	1.5%	18	1.2%	21	1.0%	18	
인터넷/게임/전자오락	1.6%	16	1.3%	19	2.0%	13	'97(컴퓨터통신)
생활취미활동	4.7%	7	4.3%	8	-	24	
학습	2.5%	12	2.1%	14	0.4%	21	
예술감상	7.9%	5	6.5%	6	6.8%	7	'97(문화예술감상)
스포츠관람	3.1%	11	3.8%	10	2.9%	8	
노래방/게임방/전자오락실	1.4%	20	1.7%	15	1.6%	14	'97(노래방)
예술창작	4.2%	8	2.4%	13	2.3%	12	'97(문화예술참여)
등산/낚시	12.0%	2	10.3%	2	10.8%	2	
여행	19.2%	1	20.2%	1	23.0%	1	
쇼핑	-	24	7.3%	5	9.2%	4	
기타	0.4%	23	0.5%	23	0.2%	23	
계	100.0%		100.0%		100.0%		



(표 13) 지역문화시설 연간 이용률 및 연평균 이용횟수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연평균 이용횟수			
			전체대상		이용자대상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전체	38.9	47.6	3.28	4.81	8.44	10.12
시/군/구민회관	9.6	13.5	0.21	0.63	2.20	4.69
문화예술회관	11.6	14.0	0.28	0.36	2.44	2.59
복지회관	5.5	8.3	0.26	0.55	4.68	6.68
청소년회관	4.4	5.0	0.14	0.37	3.14	7.52
문화원	2.4	2.5	0.06	0.09	2.54	3.82
도서관	16.0	12.4	1.86	1.37	11.65	11.13
박물관	11.5	13.1	0.24	0.26	2.13	1.99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2.7	0.07	0.13	3.97	4.87
시설문화센터	4.6	11.7	0.16	1.04	3.38	8.90

3.28회였다. 이용횟수별로 살펴보면 이용한 적 없음(61.2%), 1회(14.2%), 4회 이상(11.7%), 2회(8.6%), 3회(4.5%)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이용률과 이용횟수가 모두 줄었다. 시설별 이용경험 역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줄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0대(60.2%)와 전문/관리직(58.3%), 학생(58.4%)의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았다.

문화시설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시/군/구민회관 9.6%, 문화예술회관 11.6%, 복지회관 5.5%, 청소년회관 4.4%, 문화원 2.4%, 도서관 16.0%, 박물관 11.5%,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시설문화센터 4.6%로 조사되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률이 낮아졌다. 특히 도서관 연간 이용률은 16.0%, 연평균 이용횟수는 1.86회로, 2000년 조사(12.4%, 1.37회)에 비해 약간 늘었다. 이용률은 10대 (44.2%)와 20대(25.4%), 대학 재학 이상 학력층(26.2%), 그리고 전문/관리

직(25.6%)과 학생들 (40.7%)에게서 다른 응답자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가구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실태는 다음의 표 14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9개 문화시설의 연간 문화행사 참여율은 32.3%, 연평균 참여횟수는 1.25회였다. 이용횟수별로 살펴보면, 참여한 적 없음(67.9%), 1회 (14.7%), 2회 (8.7%), 4회 이상(5.2%), 3회(3.7%)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화시설별로 문화행사 참여율을 살펴보면, 시/군/구민회관 8.3%, 문화예술회관 10.6%, 복지회관 4.6%, 청소년회관 3.6%, 문화원 2.1%, 도서관 7.1%, 박물관 10.8%,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7%, 시설문화센터 4.4%로 조사되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참여율은 도서관과 박물관을 제외하고 낮아졌으며, 연평균 참여횟수는 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한편 문화시설 단순이용률(38.9%)과 문화행사 참여율(32.2%)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평

(표 14) 문화시설 단순이용률과 행사참여율

구 분	단순이용		문화행사참여	
	이용률	연평균 이용횟수	참여율	연평균 참여횟수
전체	38.9%	3.28	32.2%	1.25
시/군/구민회관	9.6%	0.21	8.3%	0.16
문화예술회관	11.6%	0.28	10.6%	0.24
복지회관	5.5%	0.26	4.6%	0.12
청소년회관	4.4%	0.14	3.6%	0.08
문화원	2.4%	0.06	2.1%	0.04
도서관	16.0%	1.86	7.1%	0.23
박물관	11.5%	0.24	10.8%	0.23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0.07	1.7%	0.04
시설문화센터	4.6%	0.16	4.4%	0.12

균 이용횟수(3.28회)와 연평균 참여횟수(1.25회)는 차이가 컸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용횟수보다 참여횟수가 적으며, 특히 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횟수가 이용횟수보다 매우 적은 데서 기인한 현상이다.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0대(43.7%), 전문/관리직(50.0%), 학생들(42.2%)에게서 참여율이 높았다. 그리고 대학재학 이상 학력층과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구 월평균이 많을수록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36.4%)의 참여율이 대도시(29.7%), 군지역(28.1%)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도서관 부문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연간 참여율은 7.1%, 연평균 참여횟수는 0.23회였다. 참여횟수별로 보면, 1회 참여자가 2.3%, 2회 참여자가 1.8%, 3회 참여자가 1.2%, 그리고 4회 이상 참여자가 1.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0대(18.0%)와 학생들(16.5%)의 참여율이 다른 응답자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도시지역에서

참여율이 높았다.

### 6.3 향후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 의향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지역문화시설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문화강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2.6%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6과 같이 참여자의 경우에는 88.6%가, 비참여자의 경우에는 50.2%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참여의향은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약간 낮았다.(2003년 62.6%, 2000년 68.3%)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참여의향은 남성(56.7%)보다 여성(68.3%)에게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많았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68.6%)에서 비교적 참여의향이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재학 이상 69.3%, 고졸 62.2%, 중졸이하

(표 15)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연평균 참여횟수

단위 : %, 회

응답내용	사례수	참여한적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계	평균
[전체]	(2000)	92.9	2.3	1.8	1.2	1.8	100.0	(.23)
○ 성별								
남 성	(991)	94.7	1.8	1.5	.8	1.2	100.0	(.17)
여 성	(1009)	91.2	2.8	2.1	1.6	2.4	100.0	(.29)
○ 연령별								
10 대	(206)	82.0	8.7	4.9	1.9	2.4	100.0	(.36)
20 대	(437)	88.3	2.1	2.5	2.7	4.3	100.0	(.50)
30 대	(457)	94.3	1.8	1.5	.9	1.5	100.0	(.23)
40 대	(383)	95.0	2.3	1.0	1.0	.5	100.0	(.11)
50 대	(405)	98.3	.2	.7	.0	.7	100.0	(.05)
60세 이상	(112)	98.2	.9	.9	.0	.0	100.0	(.03)
○ 도시규모								
대 도시	(988)	91.8	3.0	1.5	1.4	2.2	100.0	(.26)
중 소 도시	(791)	93.0	1.9	2.4	1.0	1.6	100.0	(.24)
군 지역	(221)	97.3	.5	.9	.9	.5	100.0	(.08)
○ 학력별								
중 졸 이하	(426)	93.2	2.1	2.8	.9	.9	100.0	(.15)
고 졸	(864)	96.2	1.4	.8	.8	.8	100.0	(.12)
대 재 이상	(710)	88.7	3.5	2.4	1.8	3.5	100.0	(.41)
○ 직업별								
전문/관리직	(86)	88.4	3.5	2.3	3.5	2.3	100.0	(.44)
사 무 직	(294)	91.2	2.0	.7	1.4	4.8	100.0	(.52)
서비스/판매직	(382)	96.3	1.8	.8	.3	.8	100.0	(.09)
생 산 직	(248)	97.2	.4	1.6	.8	.0	100.0	(.06)
자 영 업	(136)	99.3	.0	.0	.7	.0	100.0	(.02)
주 부	(437)	95.2	1.4	1.1	1.1	1.1	100.0	(.16)
학 생	(351)	83.5	5.7	5.1	2.3	3.4	100.0	(.40)
기 타/ 무 직	(66)	92.4	4.5	3.0	.0	.0	100.0	(.11)
○ 소득별								
100만원 이하	(75)	98.7	.0	1.3	.0	.0	100.0	(.03)
101~150 만원	(182)	93.4	2.2	2.7	1.1	.5	100.0	(.16)
151~200 만원	(391)	95.9	1.0	1.3	1.0	.8	100.0	(.12)
201~300 만원	(690)	93.0	1.6	1.4	1.7	2.2	100.0	(.24)
301만원 이상	(662)	90.2	4.1	2.3	.9	2.6	100.0	(.33)

(표 16)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

대 상	2003년 조사		2000년 조사	
	표본수	참여의향	표본수	참여의향
전 체	2,000명	62.6%	2,000명	68.3%
문화행사 참여자	643명	88.6%	951명	81.6%
문화행사 비참여자	1,357명	50.2%	1,049명	56.1%

52.1%), 그리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참여의향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73.3%)과 학생들(70.1%)에게서 참여의향이 많은 반면, 생산직(49.2%)과 자영업(50.7%)에서 참여의향이 적었다.

이처럼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1,251명)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 다음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 관람’(25.8%), ‘영화 관람’(23.2%), ‘미술전시회 관람’(7.1%), ‘예술관련 교양강좌’(6.8%), ‘문학 강좌’(5.8%), ‘예술 창작’(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향후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어떠한 그릇에 담아 제공해야 할 것이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공연 관람’을 가장 선호하였다.(남성 52.0%, 여성 53.6%), 다만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영화 관람’(남성 29.2%, 여성 18.3%)을 선호하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연령과 관계없이 ‘공연 관람’을 가장 선

호하였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공연관람’을 더욱 선호하였다(69.0%). 상대적으로 10대에서는 ‘영화관람’을 선호하는 응답(35.7%)이 많았다.

셋째,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공연 관람’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특히 군지역에서 ‘공연 관람’을 더욱 선호하였다(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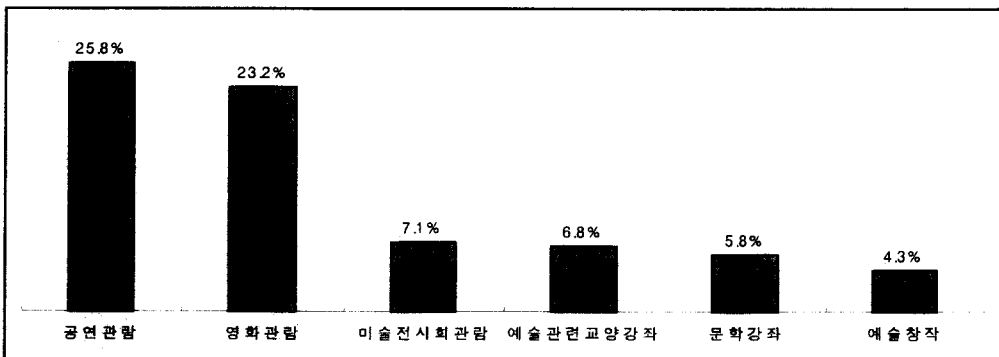
넷째, 학력과 관계없이 ‘공연 관람’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섯째, 직업과 관계없이 ‘공연관람’을 가장 선호하였다. 상대적으로 전문/관리직에서는 ‘미술 전시회 관람’과 ‘예술관련교양 강좌’를 선호하는 응답(각각 15.9%, 12.7%)이 많았고, 학생들에게서는 ‘영화관람’을 선호하는 응답 (30.9%)이 많았다.

여섯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연 관람’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공연 관람’을 더욱 선호하였다.

#### 6.4 문화시설의 사이트 활용 실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관련 인터넷 사이트 접속과 만족도, 유료 이용여부를 조사하고자 실



(그림 4) 주민들의 참여 희망 프로그램



시한 결과, 전체의 65.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의 이용률 42.4%보다 상당히 늘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1,360명)를 대상으로 문화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률, 내용 만족도, 그리고 유료이용(상품구매) 경험을 질문하였다. 문화관련 사이트는 ①문학, ②공연예술, ③미술, ④영화/비디오, ⑤방송/가요/연예, ⑥만화, ⑦역사 문화유산, ⑧문화시설 및 문화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이 같은 8개 부문의 사이트 접속률은 다음의 표 17과 같이 69.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2,000명)를 대상으로 할 경우의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률은 45.3%였다. 이러한 조사 수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기존의 정보서비스는 물론이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요구가 급증할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시설 및 문화기관

사이트만을 한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속하여 활용하는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시설 및 문화기관 사이트 접속률은 전체의 8.5%로 2000년 조사(6.0%)보다 약간 높아졌다. 인터넷 이용자(1,360명)의 문화시설 사이트 접속률은 13.0%로 2000년 조사(14.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문화시설(기관) 사이트 이용경험자(170명)를 대상으로 문화시설(기관) 사이트가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매우 만족 5.9%, 약간 만족 44.7%), '불만이다'는 응답은 8.2%(매우 불만 0.6%, 약간 불만 7.6%), '보통이다'는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은 3.48점으로 2000년 조사(3.15점)보다 높았다. 또한 문화시설(기관) 사이트 접속경험자(170명)를 대상으로 유료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4.7%의 사람들이 유료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7) 문화관련 인터넷 사이트 접속률

구 분	전체	인터넷 이용자
표본수	2,000명	1,306명
문화관련 사이트 접속률	45.3%	69.4%

(표 18) 문화시설(기관)사이트 이용자 특성

문화시설 사이트 이용자 특성		2003년	2000년
문화시설 사이트 접속률(전체 2,000명 기준)		8.5%	6.0%
문화시설 사이트 접속률(인터넷 이용자 1,306명 기준)		13.0%	14.0%
내용만족도 (접속자 170명 기준)	매우 만족	5.9%	6.7%
	약간 만족	44.7%	29.4%
	보통	41.2%	42.9%
	약간 불만	7.6%	14.3%
	매우 불만	0.6%	6.7%
	계	100.0%	100.0%
평균		3.48	3.15
유료이용 경험률(접속자 170명 기준)		4.7%	7.6%

## 7. 글을 마치면서

우리 정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는 공공도서관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수준이 매우 낙후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최근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 도서관 당 담당 봉사 인구가 미국은 26,283명, 일본은 48,852명, 프랑스는 13,982명, 캐나다는 6,479명이며, OECD 평균은 38,11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04,398명에 이르고 있다(동아일보, 2004).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면에서 이들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1년까지 750개관을 목표로 인구 60,000명당 1개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공공도서관의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진국에서 주5일 근무한 뒤 남은 이들의 주말을 보내는 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천차만별이다. 여행과 독서 그리고 몸만들기, 행사 참여하기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충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며, 저렴한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경제 효과'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선 대공황으로 실업

자가 양산되던 1938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책이나 신문, 잡지 읽기(24%)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TV 시청은 2000년 15%에서 2003년 17%로 늘어났으며, 가족과 함께 놀기는 11%에서 17%로 늘어났고, 정원 가꾸기는 8%에서 6%로 줄었다. 그 대신 외식이나 야외에서의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2%에서 5%로 늘어났다(동아일보 2004). 이는 선진국의 여가문화의 활용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규모나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각 도서관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한 가지 전략(이를테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요일 휴관, 나머지 요일 전일 근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직원별 평일 하루 휴무 대체 등의 근무 방안)을 채택한 후 은행의 예에서와 같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는 상기 전략이 채택되면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을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과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신설을 준비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이나 소관 행정부처에서는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 등 근무여건을 문화기반시설로서의 특성을 감안하되 전술한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도서관의 입장보다는 사서직원의

입장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서 직원들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 평일에는 업무의 강도를 높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문화활동과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의 이용 및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사이버상의 홍보 및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4. 도서관에서의 주5일 근무제 대응 전략.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2004년 10월 14-16일.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 권희식. 2002. 주5일 근무제와 도서관. 『도서관 연구』, 19: 46-49.
- 『동아일보』. 2004. 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1>, <2>, <3>, <4>, <5>. 6월 27일-7월 1일.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동 연구원
- 박정희. 2004. 공공기관의 변형근무시간제 운영 사례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을 중심으로.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2004년 10월 14-16일. [부산: 한국도서관협회].
- 삼성경제연구소. 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 조건. 『CEO Information』, 311호.
- 서울시도서관연구회 행정분과위원회. 공공도서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구. 『도서관 연구』, 19: 15-37.
- 윤희운. 2002.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 『도서관』, 57(1): 40-79.
- 이용훈. 2002. 공공도서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도서관연구』, 19: 38-45.
- 『중앙일보』. 2004. [주5일제] 놀아서 고민...못 놀아서 고민. 7월 2일.
-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권익협력위원회,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대비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 개선 관련 도서관계의 건의 사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문화정책방향』. 서울: 동 개발원
- 행정자치부, 2004.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148호, 6월 24일. 서울: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2005.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5월. 서울: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2005.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안)』, 6월. 서울: 행정자치부.
- 노동부, 2005.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 4월. 서울: 노동부.
- Ajax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townofajax.com/english/library.html>>

- Berkeley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berkeleypubliclibrary.org/system/location.html>>
- Birmingham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bham.lib.al.us/locations>>
- Boston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bpl.org/general/hours.htm>>
- Chicago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cpl.lib.uic.edu/001libraries.html>>
- Denver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denver.lib.co.us/phprint.php>>
- Edinburgh City Libraries. [cited 2005.5.6]  
<<http://www.edinburgh.gov.uk/libraries>>
- Hawaii State Public Library System.  
<[http://librarieshawaii.org/locations/hours\\_exception.htm](http://librarieshawaii.org/locations/hours_exception.htm)>
- Helsinki City Library. [cited 2005.5.6]  
<<http://www.lib.hel.fi/page.asp?id=2286>>
- Houston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houstonlibrary.org/hpl/branches/cen\\_home.html](http://houstonlibrary.org/hpl/branches/cen_home.html)>
- Hyogo Prefectural Library. [cited 2005.6.6]  
<<http://www.library.pref.hyogo.jp>>
- Indiana Public Library Standards  
<<http://www.statelib.lib.in.us/www/isl/ldo/pubstan.html>>
- Mount Gambier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mountgambier.sa.gov.au/library>>
- Niigata Prefectural Library. [cited 2005.6.6]  
<[http://www.pref-lib.niigata.niigata.jp/index\\_frame.html](http://www.pref-lib.niigata.niigata.jp/index_frame.html)>
- Openbare Bibliotheek Amsterdam [cited 2005.5.6]  
<<http://www.oba.nl/ipark/index.cfm>>
- Public Libraries of Europe.  
<<http://dSPACE.dial.pipex.com/town/square/ac940/eurolib.html>>
- Redbridge City Libraries.  
<<http://www.redbridge.gov.uk/learning/centrallibrary.cfm>>
- Reims Public Library.  
<[http://www.bm-reims.fr/integration/REIMS/accueil\\_haut.htm](http://www.bm-reims.fr/integration/REIMS/accueil_haut.htm)>
- Sabah State Library. [cited 2005.5.6]  
<<http://www.ssl.sabah.gov.my/abouts/openinghours>>
- Shimane Prefectural Library. [cited 2005.6.6]  
<<http://www.pref.shimane.jp/section/kento>>
- Shimonoseki City Library. [cited 2005.6.6]  
<<http://www.library.shimonoseki.yamaguchi.jp>>
- Virginia Public Library. [cited 2005.5.6]  
<<http://www.virginia.lib.mn.us/hours.html>>
- Wellington City Libraries. [cited 2005.5.6]  
<<http://www.wcl.govt.nz>>
- Yokohama City Library. [cited 2005.6.6]  
<<http://www.city.yokohama.jp/me/kyoiku/library>>
- York City Libraries. [cited 2005.5.6]  
<<http://www.york.gov.uk/libraries/librarytimes.html>>
- Zentral-und Landesbibliothek Berlin. [cited 2005.5.6]  
<[http://www.zlb.de/kunden\\_service](http://www.zlb.de/kunden_service)>